남원경찰,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 실시

남원경찰서(서장 강태호)는 지난 13~14일 도통초를 방문해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등 선제적 범죄예방을 위한 소규모(반별) 범죄예방교실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신체·언어폭력, 성폭력 및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사이버폭력(인터넷 도박, 무분별한 댓글 등) 등 자주 발생하는 사례중심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메뉴얼을 준수하며 학급별 소규모 교육으로 진행하였다.

강태호 서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경찰, 범죄예방 우수원룸 3개소 인증

남원경찰서(서장 강태호)는 지난 14일, 왕정동의 원룸 3곳에서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패' 전달식을 가졌다.

경찰의 '범죄예방 우수시설 원룸' 인증제란, 시설주등의 요청에 따라 경찰서

범죄예방(CPO)이 범죄예방과 관련된 체크리스트 항목을 점검해 80%이상 충족하면 관할 경찰서장 명의의 인증패를 수여하며, 2년마다 재인증을 통해 지역(시설물)의 안전을 지속 관리·유지토록 하는 제도다.

강태호 서장은 "앞으로도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남원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경찰, 어린이보호구역 올바른 주정차 캠페인

김제경찰서(서장 김상형)는 14일 오전 8시 김제검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하며 김제경찰서 교통관리계 뿐만 아니라 김제시 교통지도계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하였다.

이날 캠페인 시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는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인 만큼 운전자들에게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하였으며 아울러 지자체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을 운행하며 불법주정차 단속도 병행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따뜻한 완주 함께 만들어요'

완주자봉센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와 협약

사)완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영석)는 지난 14일 완주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공동위원장 이중하)와 상호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와 사)완주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완주자봉)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 발굴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협약을 진행했다.

또한, 양 기관은 각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공동 협력사업의 발굴과 추진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완주군의 소외계층을 위하고 지역사회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 지사협과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스스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완주자봉센터 두 기관이 손 잡고 노력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없는 살기좋은 완주군, 자원봉사로 하나되는 따뜻한 완주군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완주군자원봉사센터 김영석 이사장은 "두 기관 모두가 완주군민을 위한 기관이기에 이 번 협약을 계기로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큰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무주 적상면, 주택화재로 우울한 주민 마음 달래

이웃 주민의 재빠른 대처로 귀중한 생명을 살리고 봉사단체와 적상면행정복지센터의 따뜻한 위로 격려 등 잔잔한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군 적상면 적십자봉사회(회장 방옥엽)는 적상면 맞춤형복지팀과 함께 지난 12일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가구를 방문, 재해구호세트, 비상식량세트 등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지난 12일 새벽 5시께 주택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크게 번져 가옥 한 채가 전소했다. 폭발음에 놀란 이웃 주민이 깊은 잠에 빠져 화재 발생을 알아차리지 못한 김 모 어르신(73)을 깨워 긴급히 대피시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갑작스런 피해를 입고 당황해 했던 이 어르신은 "적상면 적십자봉사회에서 화재 발생 당일 신속히 긴급구호물품을 지원해주고 적상면 맞춤형복지팀에서 정서 안정을 위한 기초 건강상태 점검과 함께 가족처럼 위로해 주어 조금이나마 시름을 덜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백승훈 적상면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민·관이 한마음이 되어 화재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 무풍면 주민소통·마을발전 기반 안방마을회관 준공

무주군은 지난 14일 무풍면 안방마을회관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 인원은 30여 명으로 제한했으며 마스크 착용과 발열여부 확인, 손 소독,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속에서 행사를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무주군의회 박찬주 의장을 비롯한 내빈과 태구식 노인회장, 최경서 이장 등 주민들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최경서 이장은 "안실과 방곡마을 주민들이 농한기에 같이 쉬고 농번기에는 서로 도우며 번영을 일궈나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다"라며 "두 마을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마을회관을 처음 세웠던 그날을 생각하며 화합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황인홍 군수는 "그동안 크지 않은 공간을 안실과 방곡 주민 여러분이 함께 쓰셔야했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널찍하니 말끔해진 회관을 보니 흐뭇하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소방서, 4월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진행

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난 13일 4월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소방차 동승체험을 병행 실시했다.

이번 길 터주기 훈련은 매월 1회 소방차 동승 체험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으며, 체험에서는 소방차량 적재장비 소개, 화재진압 방화복 착용체험, 출동 중 길 터주기 안내방송 등을 체험하고 있다.

동승 체험을 경험한 시민은 "이번 체험을 통해 소방차 출동로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표현했다.

박덕규 서장은 "소방차 동승체험을 통해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과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다문화가정 안전교육·시설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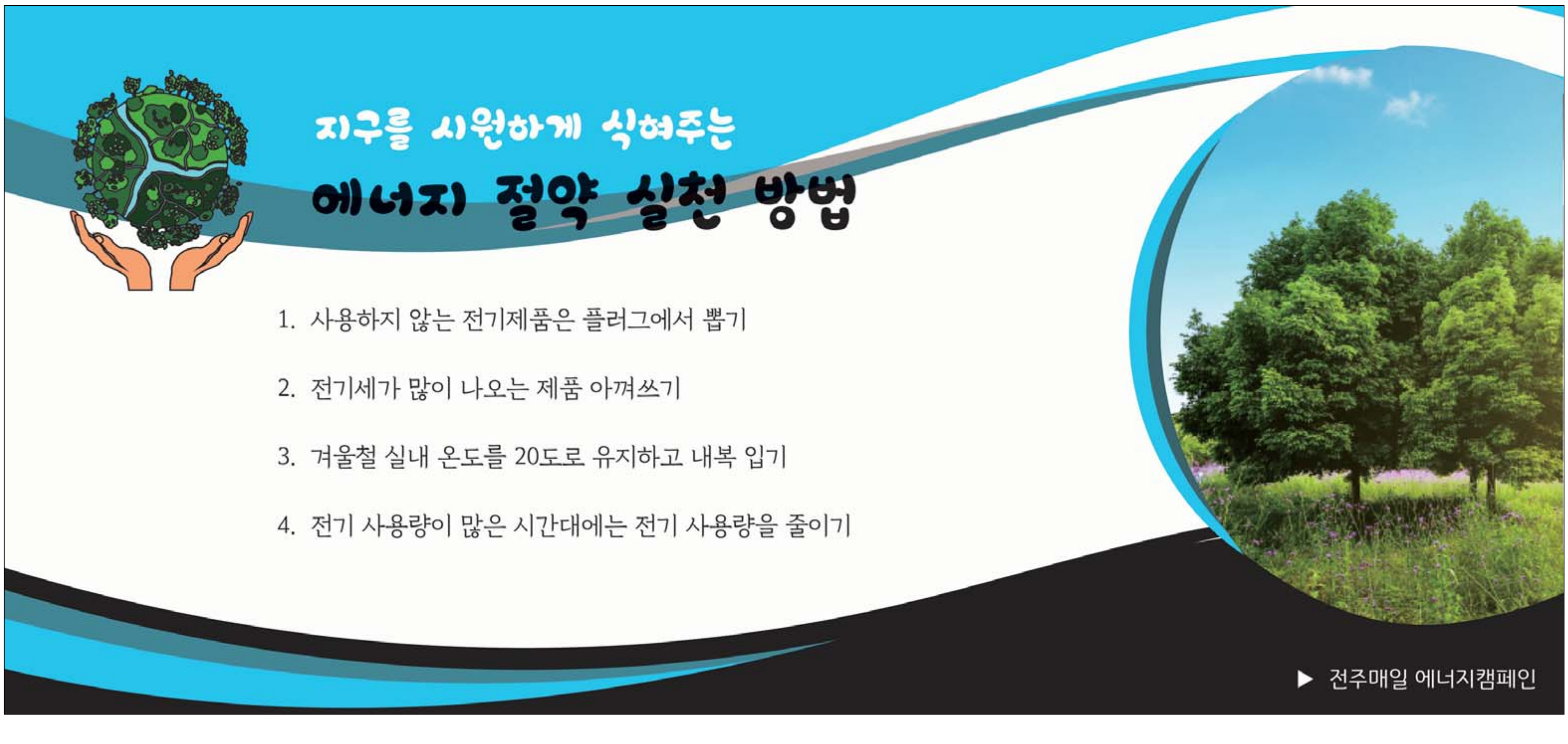
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든든한 소방, 따뜻한 연대'을 위해 다문화가정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소방안전교육은 다문화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소방시설 사용법, 119신고 요령, 생활 응급처치 교육 위주로 실시하고, 다문화가정 60가구에 기초소방시설 소화기와 주택용화재경보기를 보급했다.

또한 베트남어 등으로 번역한 '다국어 소화기 사용법 가이드북'을 제작 배부하며 응급상황에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 김제지부, 봄감자 출하를 위한 일손돕기

농협 김제시지부(지부장 김태곤)는 지난 13일 광활농협 감자선별장에서 금만농협·진봉농협, 김제시 농가주부모임 회원 등 30여명과 함께 광활농협 봄감자 출하를 위한 일손돕기를 실시하였다.

봄감자 전국 최대 생산지인 김제시 광활면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손부족 등으로 출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금번 행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김태곤지부장은 " 농협 김제시지부는 코로나19 및 지난 겨울 한파로 인하여 2중고를 겪고 있는 광활면 감자생산 농가에 앞으로도 더욱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